

전시 “Broken Whole”에 부처

Dr. Eugen Blume
(Director, Hamburger Bahnhof)

작가 이수경은 1963년 아시아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현재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적 경향의 동시대 미술은 이미 국내로 받아들여진 지 오래이고 갤러리와 미술관 그리고 다수의 비엔날레와 함께 미술의 유통과정은 이미 글로벌화된 수준에 도달한 요즘 현대미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이수경 작가는 흥미롭게도 아직도 한국 전통의 정취가 남아있는 부암동 지역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다.

이 작업실은 단순한 지붕으로 덮인 간결한 구조의 목재 건물이고, 작은 안마당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쌓여있다. 작가는 이 깨진 조각들을 이천, 여주, 광주, 단양, 문경, 하동, 강진 그리고 부안에 소재한 한국의 여러 도자기 마을에서 수집했다. 특히 이천은 80개 이상의 도자 공방들이 위치하고 있는 도자기 마을로서 그 규모는 국내 최대 수준이며 2년마다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가 열린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사용되는 도자기 조각들의 일부를 이 도자기 공장들의 오래된 매립지에서 발굴하는 것이다.

천여 년 전 중국에서 유입되어 발전해 온 한국의 도자기 제작 기술은 아시아 전역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전통 도자기 또한 한국 도예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 도예가들의 지식은 처음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16세기 당시에 일본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한국 도자기 역사상 도자기의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고려시대의 ‘청자’에서 뿔어져 나오는 비취색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이 시대에 발명된 유약을 바르는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백자’ 또한 명성이 높다. 이러한 도자기 기법의 아름다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오늘날 사실 소수의 젊은 예술가들만이 전통적 기법을 활용하거나 이를 뛰어 넘는 시도를 한다. 그 중 한 명이 이수경 작가이다.

이수경은 한국 현대미술을 독창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요 작가 군에 속해있다. 그녀의 전시 경력이 증명하듯 이미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지도를 넓히며 명성을 얻고 있다. 그녀는 동시대 미술의 특징인 경계 짓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작품을 통하여 구현하고 있으며 아카데미적 전통에도 구속되지 않는 작업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한 그녀의 작품을 보다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국 전통 문화와 닿아있는 접점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글의 도입부에 언급한 깨진 도자기들의 조각 - 대부분 푸른색으로 칠해지거나 흰색 유약을 바른 - 들을 모양을 구축하기 위한 내부 구조물 주위로 결합시키면서 기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추상 조각품을 제작한다. 조각들 사이의 이음새 부분은 전통적 기법에 따라 금으로 처리되어 깨진 조각들의 집합적 느낌은 완전히 사라진다. 감상자는 작가가 부여한 형태 그대로 가마에서 구워진 도자 조각작품을 본다고 믿는다.

비록 도자기의 파편이라는 재료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조각작품들의 형식을 결정짓지만, 이 작품들은 통상적 의미의 도자기라기 보다는 부서지고 무가치하게 버려진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몽타주(montage) 기법과 더 관계가 깊다. 즉, 이 조각작품들은 다다이즘 이래로 "일상적" 재료를 사용하는 서구의 전통적인 몽타주 기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2009년 여름 데사우 Dessau 에서 멀지 않은 오라니엔바움 바로크 성 Schloss Oranienbaum에서는 지금까지의 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이수경 작가의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독일에서의 처음 미술관 전시를 가진 이수경 작가의 작품은 놀라웠다. 가족 그림으로 도배된 홀과 중국풍의 공간 속에서 그녀의 조각작품과 그리고 정교한 필치의 훌륭한 그림들이 전시되었다. 종교적 회화가 결합된 오브제인 그녀의 "이동식 사원 portable temple"은 이수경이 위탁한 한 전통 화가에 의해 옛날 방식으로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한국 문화와 종교적 문제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고민을 보여준다. 병풍의 각 폭에 그려진 부처상은 관객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움직일 수 있는 병풍의 틀에 의해 쉽게 형성되는 작은 기도의 공간 혹은 명상의 공간에서 부처의 지혜와 깨달음은 - 특히 부처의 뒷모습은 그의 지혜와 깨달음을 반영하고 있다 - 관객의 눈에 도달하기 어렵다. 도자기 조각작품에서처럼 자기 나라의 문화적 과거에 대한 이수경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관심이 지적인 창작품들에 명백하게 드러난다. 바로 이러한 관심이 그녀의 작업에 현대적 정서를 훨씬 뛰어넘는 깊이를 부여한다.

글> 오이겐 블루메 Prof. Dr. Eugen Blume, Head of Hamburger Bahnhof

번역> 곽소연 Soyeon Goak